

따릉이 이용자 급증하는데... 대여소 손 소독제 ‘텅텅’

2~3월 이용률 전년비 67% ↑
코로나 사태·기후변화 영향 커

이른 시간에도 손 소독제 바닥
냄새가 변하거나 도난된 곳도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치해 둔 손 소독제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운동할 공간이 줄어들던 데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방역과 손 소독제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 해서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진동과 내자동, 광진구 군자동, 송파구 마천동의 대여소를 찾았다. 자전거 대부분이 대여 중이었는데 부착된 손 소독제의 양은 적거나 얼마 남지 않았다. 오전을



8일 오후 1시경 서울 군자동 근처의 '따릉이' 대여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가 두 통 다 비어있다(왼쪽). 오른쪽은 마천동 대여소의 모습. /원은미 수습기자

갓 넘겨 이른 시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손 소독제 두 통 중 한 통이 비었거나 두 통 모두 바닥을 드러냈다.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이하 시설)의 최근 집계 현황에 의하면, 올해 2~3월 따릉이 이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7% 증가했다. 서울시설공단 측은 “2~4월에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에는 코로나19 여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도 크

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중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서울시는 따릉이 이용객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을 권유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개별 자전거의 방역은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면서 “대여소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꼭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살펴본 소독제 관리는 허술했다. 수요가 폭증하면



서 대여소당 두 통씩 마련한 손 소독제도 부족해졌다. 냄새가 변하거나 도난 상태인 소독제도 있었다. 이날 오전 종로구에서 자전거 배송과 소독제 배치 업무를 하고 있던 서울시설공단 직원을 만났다. 이 직원은 “아침 7시부터 실시간으로 각 대여소의 자전거 수를 확인해 많은 곳의 자전거를 적은 쪽으로 옮긴다”며 “해당 작업과 동시에 손 소독제도 갈아긴다”고 말했다.

시설공단 측은 “손 소독제 교체만의 이유로 직원들이 돌아다니지는 않는다”면서 “직원들은 전 대여소를 하루 1회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독제 잔량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설공단 공공자전거운영처에 따르면 자전거 배송과 방역 작업을 맡은 직원은 200명가량이다. 본래 정규직 직원은 96명에 불과했지만, 여름철 이용객이 추가될 것을 고려해 계약직을 포함해 200여명으로 확대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매년 직원을 늘려왔고, 현재는 방역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사람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해 자전거에 직접 손대지 않고 QR코드 스캔만으로 대여와 반납을 할 수 있는 ‘QR형 뉴 따릉이’를 올 하반기까지 1만5000대 도입할 예정이다.

/원은미 수습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서울 내 지역 불평등 심화... 동남 ‘우수’·서남 ‘열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동남권, 보건·교육 등 주요자원 집중
서남권, 주거환경 불만족 가장 높아

서울 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따르면 사회격차 지표 분석 결과 동남권은 보건, 복지, 교육, 노동, 주거 환경이 우수한 반면 서남권은 열악했다. 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사회격차 지표 개발했다. 연구진은 성,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직업과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과 권역, 자치구별 지역 단위로 지표를 분류해 모니터링했다.

지표 분석 결과 보건 분야에서는 도심권과 동남권에 면적당 의료기관수, 인구당 병상수와 의료인력수 등 보건의료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동북권은 동대문구를 제외한 7개 자

치구에서 인구당 병상수와 전문의 수가 서울시 평균 이하였다. 연간 평균 의료비는 소득수준이 낮고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부담이 컸다. 미충족 의료 비율과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은 교육수준이 떨어지고 소득이 적을수록 높았다. 김일호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위원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보건의료에서 불평등을 경험할 확률이 컸다”고 전했다. 연구진이 상대빈곤가구·아동빈곤가구·노인빈곤가구 비율 지표를 통해 복지 분야 격차를 살펴본 결과 빈곤율은 서북권이 가장 높고 동남권이 가장 낮았다. 노후준비비율은 동남권이 1위였고 서남권이 꼴찌였다. 서울에서는 10가구 중 7가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했는데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82%로 이용비율이 가

장 높았고 서남권이 70.5%로 최하위였다.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은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비율이 적었다. 소득 하위계층이 69.5%로 가장 낮았으며, 중하위는 78.2%, 중상위는 86.2%였다.

지역 간 노동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동남권이 3396만4000원으로 소득 수준이 높았고 도심권이 2773만7000원으로 낮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양천구가 4697만600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금천구가 2181만5000원으로 최하위였다.

서울 거주 가구의 11.5%가 주거환경에 불만족을 나타냈는데 그중 서남권이 18.1%로 으뜸이었다. 동남권은 4.9%로 불만족 비율이 가장 적었다. 의료시설 접근성, 교육환경, 치안·범죄 전 분야에서 서남권 시민들의 불만족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동남권이 가장 낮았다. /김현정 기자 hjk1@



분주한 상계역 열차복구 현장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노원구 상계역에서 열차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43분께 상계역에 멈춰있던 코레일 열차를 창동차량기지로 회송중이던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추돌해 양방향(노원→당고개) 운행이 중단됐다. /뉴스

유해환경 노출 소방공무원에 진료비 지급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571명에 진료비, 식사비 별도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2년간 재난현장에서 구급·구조활동 중 유해환경에 노출된 소방공무원 571명에게 병원진료비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구조·구급활동 중 벌어지는 피해와 손실보상을 전담하는 ‘현장민원전담팀’을 2018년 출범시킨 이후 총 4454건 1만712명의 유해환경 노출 사례를 접수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자나 결핵·콜레라·홍역 등

감염성 질환자를 이송한 사례, 포르말린과 같은 유해물질 노출을 회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9구급대를 통한 의심증상자 이송이 급증하면서 유해환경 노출사례도 크게 늘었다. 2020년 5월 말까지 신고 건수는 4225건 1만108명을 기록해 2019년(123건) 대비 40배가량 증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건 가운데 2575건을 처리 완료했다. 병원진료나 자가격리가 필요한 571명(208건)에게는 진료비, 식사비가 별도로 지급됐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실증

개개인별 맞춤형교통정보 제공

올 연말부터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교통정보를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앱 이용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대중교통 이동경로가 겹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개발·실증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AI를 기반으로 개인의 통행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앱에서는 신용카드를 이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용한 대중교통 탑승, 자전거나 킥보드와 같은 공유 교통수단 이용 내역 등 여러 기관과 기업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통행·이동 궤적 데이터를 통해 AI가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으로 예측되는 교통, 통행, 날씨 정보도 반영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2차 지급

서울시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총 46만명(10일 오후 6시 기준) 가운데 심사를 끝낸 적격자 31만여명에게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해 이달 4일 적격자 9000여명에게 1차 지급을 했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저리 대출이 아닌 현금 지급에 자영업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 담당부서에 전화 문의가 5549건, 온라인 응답소 민원이 545건 들어왔다. /김현정 기자

성산대교 복단 구간, 성능개선공사 완료

서울시 오후 2시부터 개통

서울시는 성산대교 복단 구간의 성능개선공사를 완료해 12일 오후 2시부터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강변북로 일산방면에서 성산대교로 진입하는 램프는 26일 오후 2시에 개통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성산대교를 보수·보강하기 위해 2017년 3월 착공한 성산대교 복단 성능개선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성산대교 복단구간 개통 후에도 일부 부대공사와 가설교량 철거공사 등 후속공사가 이어진다. /김현정 기자